

2020년 9월 9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테슬라 급락 여파로 매물 출회되며 하락

테슬라 -21.06%, 애플 -6.73% Vs. 니콜라 +40.79%, GM +7.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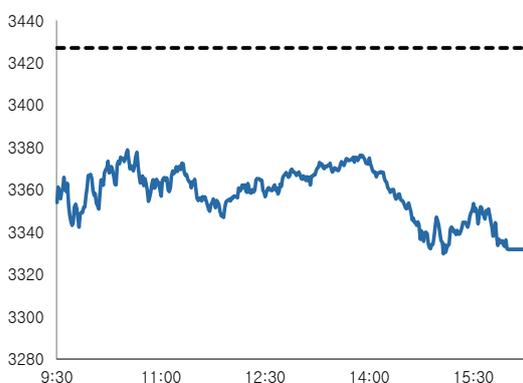
미 증시 특징: 다시 시작된 대형 기술주 매물 출회

미 증시는 테슬라(-21.06%)의 급락이 다시 시작되자 하락 출발. 이 여파로 애플(-6.73%)이 15 일 이벤트 초대장을 발표하는 등 일부 호재가 나왔으나 기술주 중심의 매물 출회 확대로 지수는 부진. 더불어 SMIC 제재 우려로 반도체주가, 국채금리 하락 여파로 금융주가 부진. 반면, 상원의 이번주 추가 부양책 관련 표결 계획 발표로 일부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보이는 등 차별화 지속(다우 -2.25%, 나스닥 -4.11%, S&P500 -2.78%, 러셀 2000 -2.00%)

테슬라(-21.06%)의 급락이 이어지고 있음. 증자와 주요 주주의 지분 매각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S&P500 지수 편입에 실패한 이후 낙폭 확대. 이 결과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대형 기술주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시장 전반에 매물 출회. 더불어 소프트뱅크의 주식옵션 대량 매입은 잘한 일이라는 하지만 결국 옵션을 처분할 때 대형 기술주의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부각된 점도 부담. 특히 소프트뱅크의 일부 대형 기술주 중심의 주식 옵션 매입으로 펀더멘탈과 관련 없이 주가가 급등했다는 점이 알려지며 서둘러 매도 하려는 투자자들이 급증.

한편, 국제유가가 수요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8% 급락해 에너지 업종이 부진. 금융주도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하자 매물 출회. 여기에 미 국방부가 중국 반도체 업체인 SMIC 를 제재하게 되며 램리서치(-9.13%) 등 반도체 장비 업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칩 관련주가 급락하는 등 연휴동안 발생한 악재성 재료가 시장에 영향을 줌. 애플(-6.73%)의 경우 15 일 새로운 아이폰 공개를 의미하는 이벤트 초대장이 발송되자 잠시 낙폭을 축소하기도 했으나 대형 기술주 부진으로 재차 낙폭 확대한 점도 지수에 부담. 다만,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가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관련 추가 부양책 관련 표결을 이번주에 진행한다고 발표하자 일부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보이는 등 차별화는 진행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 | 지수등락률(%) | Close | D-1 | 지수등락률(%) | Close | D-1 |
|---------|----------|-----------|-------|----------|-----------|-------|
| KOSPI | | 2,401.91 | +0.74 | 홍콩항셱 | 24,624.34 | +0.14 |
| KOSDAQ | | 878.29 | -0.07 | 영국 | 5,930.30 | -0.12 |
| DOW | | 27,500.89 | -2.25 | 독일 | 12,968.33 | -1.01 |
| NASDAQ | | 10,847.69 | -4.11 | 프랑스 | 4,973.52 | -1.59 |
| S&P 500 | | 3,331.84 | -2.78 | 스페인 | 6,955.00 | -1.78 |
| 상하이종합 | | 3,316.42 | +0.72 | 그리스 | 627.56 | -2.15 |
| 일본 | | 23,274.13 | +0.80 | 이탈리아 | 19,380.18 | -1.81 |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대형기술주 중심의 급락

테슬라(-21.06%)가 S&P500 지수 편입에 실패한 이후 매물이 출회 되었고, 아마존(-4.39%), 알파벳(-3.64%), MS(-5.41%) 등 대형 기술주 중심의 매물 출회 원인이었다. 줌비디오(-5.14%), 세일즈포스(-5.27%) 등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종목군도 동반 하락했다. 한편, 디즈니(+1.67%)의 경우 물란 실사판을 스트리밍으로 공개하자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가입자수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강세를 보였으며 경쟁업체인 넷플릭스(-1.75%)는 부진했다.

국방부가 중국 반도체 기업인 SMIC를 제재한다고 발표한 후 매출 의존도가 높은 램리서치(-9.13%), AMAT(-8.74%) 등 반도체 장비 업종이 급락했다. NVIDIA(-5.62%), 쉘컴(-5.35%) 등 여타 관련주도 부진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71% 하락했다. 애플(-6.73%)은 9월 15일 이벤트 초청장이 발표되자 낙폭을 축소하기도 했으나 대형 기술주 매물 출회 여파로 재차 낙폭을 확대했다. 스카이웍(-5.88%), 퀴보(-4.02%) 등 부품주도 부진했다. JP모건(-3.48%)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 하락으로 엑손모빌(-2.30%)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하락했다. 반면, 니콜라(+40.79%)는 지분 11%를 20억 달러에 GM(+7.93%)이 매입하고 2022년말까지 트럭 생산을 발표하자 급등했다.

주요 ETF

| ETF 종류 | 등락률 | ETF 종류 | 등락률 |
|--------------------|--------|----------------------|--------|
| 원유시추업체 ETF(XOP) | -5.74% | 대형 가치주 ETF(IVE) | -1.85% |
| 에너지섹터 ETF(OIH) | -6.39% | 중형 가치주 ETF(IWS) | -1.98% |
| 소매업체 ETF(XRT) | -1.45% | 소형 가치주 ETF(IWN) | -2.27% |
| 금융섹터 ETF(XLF) | -2.57% | 대형 성장주 ETF(VUG) | -3.74% |
| 기술섹터 ETF(XLK) | -4.52% | 중형 성장주 ETF(IWP) | -2.23% |
|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 -3.83% | 소형 성장주 ETF(IWO) | -1.47% |
| 인터넷업체 ETF(FDN) | -3.19% | 배당주 ETF(DVY) | -1.88% |
| 리츠업체 ETF(XLRE) | -1.27% | 신흥국 고배당 ETF(DEM) | -0.99% |
| 주택건설업체 ETF(XHB) | -0.53% |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 -0.74% |
| 바이오섹터 ETF(IBB) | -1.86% | 미국 국채 ETF(IEF) | +0.21% |
| 헬스케어 ETF(XLV) | -1.65% | 하이일드 ETF(JNK) | -0.61% |
| 곡물 ETF(DBA) | -0.54% | 물가연동채 ETF(TIP) | +0.10% |
| 반도체 ETF(SMH) | -4.43% | Long/short ETF(BTAL) | -0.22% |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 S&P 500 | Close | D-1 | D-5 | D-20 |
|---------|----------|--------|--------|---------|
| 에너지 | 250.67 | -3.71% | -5.94% | -13.33% |
| 소재 | 396.46 | -2.07% | +0.19% | +1.17% |
| 산업재 | 643.11 | -1.94% | -2.00% | -1.08% |
| 경기소비재 | 1,194.69 | -2.09% | -4.72% | +1.64% |
| 필수소비재 | 656.61 | -2.07% | -2.22% | +0.38% |
| 헬스케어 | 1,209.04 | -1.68% | -4.04% | -2.09% |
| 금융 | 408.34 | -2.59% | -1.73% | -1.54% |
| IT | 1,979.28 | -4.59% | -8.88% | -0.68% |
| 커뮤니케이션 | 199.68 | -2.40% | -4.48% | +1.62% |
| 유틸리티 | 298.01 | -0.59% | -0.48% | -4.43% |
| 부동산 | 221.56 | -1.28% | -1.34% | -1.95% |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지수 변동성 확대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0.05% 상승했으나 MSCI 신흥국 지수 ETF 는 1.74% 하락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89.8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증시는 미 증시가 대형 기술주를 비롯한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군 위주로 변동성이 확대되며 급락한 점을 감안하면 매물 출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기업과 경기 펀더멘탈 등을 신경 쓰지 않고 자산을 매수하는 'Greater fool game(더 위대한 바보 이론)'에 기반해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그러나 최근 미 증시의 급락으로 일부 투자자들이 펀더멘탈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는 차익 매물 출회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중 마찰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 점도 부담이다. 미 국방부의 SMIC 제재 언급에 이어 중국 관영 통신에서는 대만과 연계된 미국 기업 퇴출을 보도했기 때문이다.

수급 주체별로 보면 지수 상승으로 기대 수익률이 낮아져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 가능성이 제한되며, 외국인 또한 경기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적극적인 대응이 약해져 영향력이 크지 않다. 더불어 기관투자자들도 주식형 펀드 자금 이탈과 기금 등의 자산배분 목표 비중을 감안하며 주도력을 갖기 힘들다.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외환 시장에서 달러와 엔화가 강세를 보였으며, 미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져 외국인의 현물 매도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물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있어 이러한 요인으로 지수 변동성 확대는 더욱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동향지수 4 개월 연속 상승

미국 8 월 소기업 낙관지수는 전월(98.8)이나 예상(98.9) 보다 개선된 100.2 로 발표되었다. 지수 구성 항목 10 개 중 7 개가 상승하는 등 견고함을 보였다. 다만, 여전히 서비스 지출 부문이 위축되고 있다.

8 월 컨퍼런스보드의 고용동향 지수는 전월(51.37) 보다 개선된 52.55 를 기록했다. 여전히 지난해 8 월의 109.8 보다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계는 상존하지만 4 개월 연속 반등에 성공한 점은 긍정적이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사우디의 원유 수출 가격인하 및 수요 부진 우려로 급락

국제유가는 사우디가 코로나로 인한 원유 수요 부진을 이유로 아시아 지역으로의 원유 수출 가격을 인하한다고 발표하자 급락했다. 전일 이미 알려져 있던 내용이었으나 정규장이 시작된 이후 미 증시의 급락과 더불어 위험 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된 점도 부진 요인이었다. 여기에 코로나가 지속된 가운데 드라이빙 시즌의 마무리를 감안 향후 수요 둔화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부각되며 7.6% 급락으로 마감했다.

달러화는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부각된 데 따른 파운드화 급락과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엔화도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강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존슨 영국 총리가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제기하자 달러 대비 1.3% 넘게 약세를 보였다. 역외 위안화가 달러 대비 0.3% 약세를 보이는 등 신흥국 환율도 대부분 약세폭을 확대 했다.

미 국채금리는 주식시장 급락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하락했다. 더불어 국제유가가 급락하는 등 상품시장의 약세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3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46 배)를 하회한 2.28 배, 간접 입찰도 12 개월 평균(51.0%)를 하회한 50.7%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요 부진으로 낙폭이 확대되지는 않았다.

금은 달러 강세 불구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0.5% 상승으로 마감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국제유가 급락과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53% 철근도 0.53% 하락했다.

| 주요 상품 | 종가 | D-1(%) | D-5(%) | 주요 통화 | 종가 | D-1(%) | D-5(%) |
|-------|----------|--------|--------|----------------|---------|--------|--------|
| WTI | 36.76 | -7.57 | -13.73 | Dollar Index | 93.449 | +0.79 | +1.20 |
| 브렌트유 | 39.78 | -5.31 | -12.72 | EUR/USD | 1.1779 | -0.32 | -1.12 |
| 금 | 1,943.20 | +0.46 | -1.79 | USD/JPY | 106.03 | -0.23 | +0.07 |
| 은 | 26.991 | +1.04 | -5.61 | GBP/USD | 1.2986 | -1.37 | -2.97 |
| 알루미늄 | 1,792.00 | -0.31 | -1.35 | USD/CHF | 0.9179 | +0.20 | +0.93 |
| 전기동 | 6,668.00 | -1.78 | -0.29 | AUD/USD | 0.7216 | -0.84 | -2.12 |
| 아연 | 2,417.00 | -3.69 | -5.33 | USD/CAD | 1.3227 | +0.98 | +1.25 |
| 옥수수 | 361.75 | +1.05 | +1.12 | USD/BRL | 5.3649 | +1.19 | -2.34 |
| 밀 | 544.25 | -1.09 | -1.45 | USD/CNH | 6.8538 | +0.31 | +0.25 |
| 대두 | 973.00 | +0.52 | +2.05 | USD/KRW | 1186.40 | -0.16 | +0.29 |
| 커피 | 132.10 | -1.42 | +2.36 | USD/KRW NDF 1M | 1189.84 | +0.17 | +0.36 |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10년물 금리 | 증가(%) | D-1(bp) | D-5(bp) | 10년물 금리 | 증가(%) | D-1(bp) | D-5(bp) |
|---------|--------|---------|---------|---------|-------|---------|---------|
| 미국 | 0.679 | -3.92 | +0.99 | 스페인 | 0.322 | -2.80 | -7.30 |
| 한국 | 1.550 | -2.70 | -2.00 | 포르투갈 | 0.357 | -1.80 | -5.40 |
| 일본 | 0.040 | -0.70 | -0.70 | 그리스 | 1.165 | +1.90 | +2.00 |
| 독일 | -0.495 | -3.20 | -7.50 | 이탈리아 | 1.027 | -1.80 | -0.70 |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